

LUXURY

February 2014



2014 Mary Popp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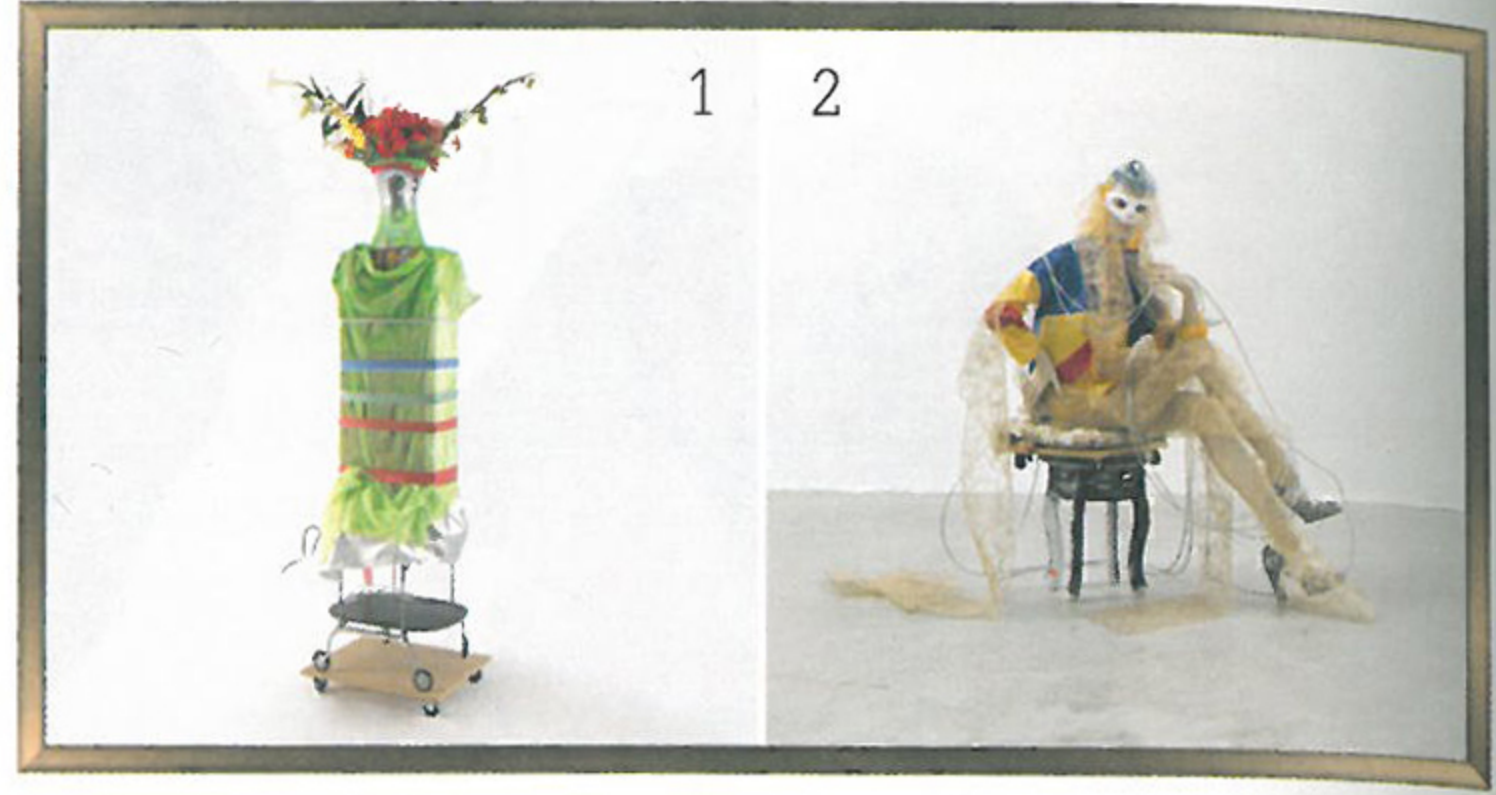
봄바람타고온스카프

For Your Valentine's Day

Chinese Art: The Next Generation

뉴욕 현대미술관 <Isa Genzken : Retrospective>

독일 출신 아티스트 이자 겐츨켄의 미국 첫 대규모 회고전이다. 2009년 우리나라 양현미술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녀는 플라스틱 의자, 시든 꽃줄기, 철제 사다리, 체크무늬 옷 등 일상 제품을 조합해 독특한 미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세로로 긴 사각형 나무통 위에 옛 여인의 초상 사진을 붙이고 그 위에 플라스틱 의자와 인형을 '대충'(시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올려놓았는데 선명한 색의 대비와 남다른 조형미가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식이다. 천재적이라 할 만큼 색을 잘 쓰는 것이 최대 무기. 쓰레기로 보이기가까지 하는 일상 용품을 뒤섞는데 다채로운 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때로 낙서처럼 마구 칠한 바니시, 아무렇게나 붙인 색 테이프가 포인트 역할을 한다. 필름, 페인팅, 드로잉, 사진, 콜라주 등 15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3월 10일 까지. www.mom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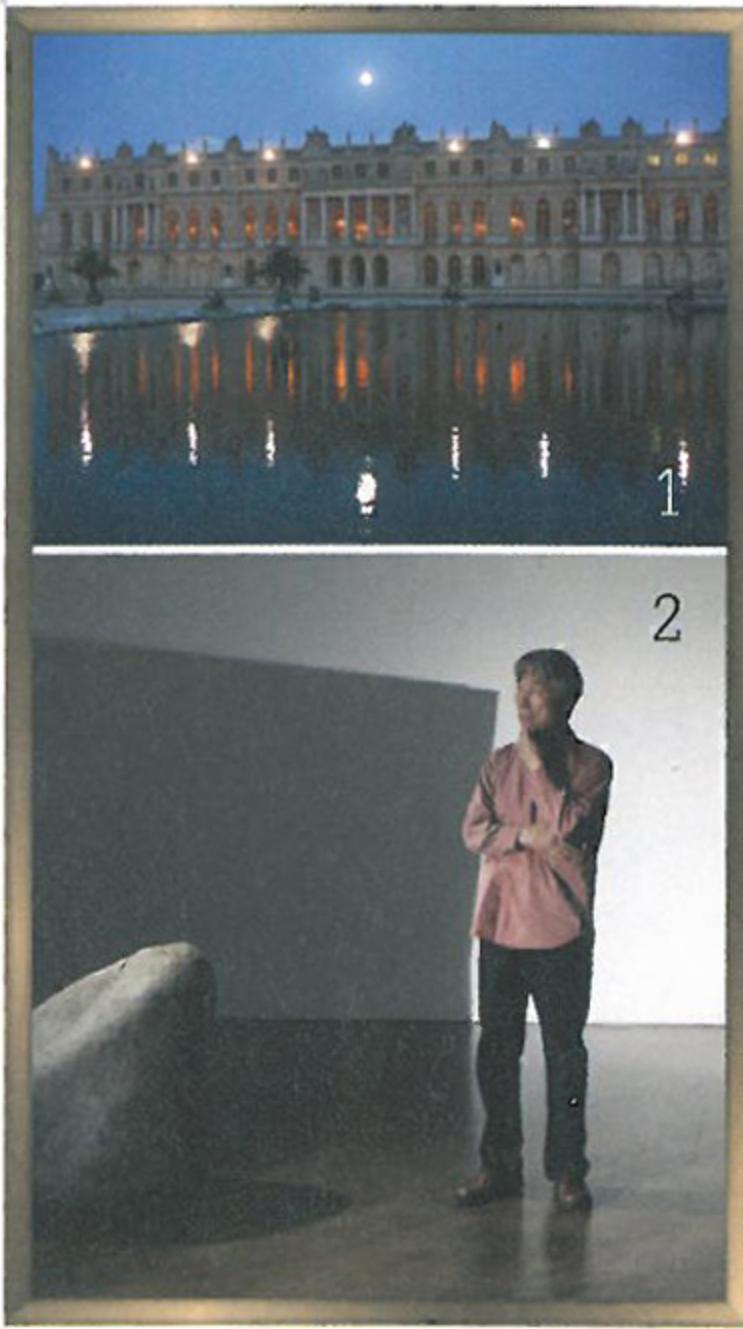
1 Hospital (Ground Zero), 2008, Spray paint and synthetic polymer paint on plastic tables, plastic bowls, toy cars, bicycle tires, tape, fiberboard, and casters, 89×58 1/16×58 1/16" (226×147.5×147.5 cm). Ovitz Family Collection, Los Angeles. Jens Ziehe, courtesy of Hauser & Wirth, London/Zurich. 2 Isa Genzken. Schauspieler (Actors) (detail), 2013. Mannequins, clothes, shoes, fabric, and paper,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the artist and Galerie Buchholz, Cologne/Berlin. ©Isa Genzken. Photo: Jens Ziehe, Berlin.

PARIS

베르사이유 궁전 <이우환 회고전>

2008년부터 매년 세계 최고 아티스트 한 명을 선정해 대규모 개인전을 여는 베르사이유 궁전이 2014년 주인공으로 이우환 작가를 택했다. 궁전 내부는 물론 야외 정원까지 '통째로' 내주는 전시. 그간 제프 쿤스, 무라카미 하루키, 자비에 베이앙 등이 선정돼 황홀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우환 작가는 장식 이 많은 궁전 내부의 방은 2~3개만 활용하고 정원을 포함한 야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전시 작품은 자연의 돌과 인공의 철판을 마주 보게 놓아 인류 역사의 다양한 대척과 조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관계항'이 될 전망이다. 그 자체로 철학인 그의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에 어떻게 스며들지 기대된다. 6월 중. www.chateauversailles.fr

1, 2 베르사이유 궁전의 외관 전경(프랑스관광청 제공). 이우환은 내부보다 외부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주제는 '관계항' 시리즈가 될 전망이다.



퐁피두 센터 <Marcel Duchamp LA PEINTURE, MÊME, 1910-1923>

1917년 뉴욕, 한 전시회에 남성용 소변기 '샘fountain'을 내면서 현대미술의 역사를 바꾼 사나이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주요 전시 작품은 드로잉과 페인팅. 예술가들에게 변기나 자전거 바퀴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자각시킴으로써 페인팅을 '죽인' 작가의 그림을 조명한다는 점이 재미있다. 다빈치가 그린 세기의 걸작 '모나리자'에 콧수염 등을 그려 넣어 우스꽝스럽게 바꾼 'L.H.O.O.Q.'와 유리판, 리드선, 오일, 바니시, 먼지 등이 어지럽게 뒤섞인 '형이상학적' 설치 작품 '그녀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의 밀그림 등을 만날 수 있다. 9월 24일~2015년 1월 5일. www.centrepompidou.fr



Marcel Duchamp, L.H.O.O.Q., 1919, Readymade corrique, Collection particuliere, ADAGP, Paris 2014

TOKYO

TOKYO



모리 아트 뮤지엄 <Andy Warhol>

모리 아트 뮤지엄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며 선택한 아티스트는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연 앤디 워홀이다. 국내외에서 워낙 자주 조명하는 탓에 "또 앤디 워홀이냐?"며 물을 수 있지만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 회화, 실크스크린, 소묘, 영상, 조각, 사진을 아우르는 작품 400점과 그가 직접 쓴 사적 편지, 잡지와 신문 스크랩 300점까지 총 700점을 전시하는 것. 모리 미술관 측은 "상업 디자이너, 화가, 음악 프로듀서, 사진가, 영화 제작자 그리고 사교가라는 다면적 얼굴을 지닌 워홀의 초기작부터 만년작까지 포괄적으로 조명한다"고 밝혔다. 앤디 워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듯. 2월 1일~5월 6일. www.mori.art.museum/eng 글 정성갑기자

Andy Warhol, Marilyn Monroe (Marilyn), 1967, Screen print on paper, 91.4×91.4 cm, The Andy Warhol Museum, Pittsburgh; Founding Collection ©2013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Marilyn Monroe™; Rights of Publicity and Persona Rights: The Estate of Marilyn Monroe, LLC marilynmonroe.com